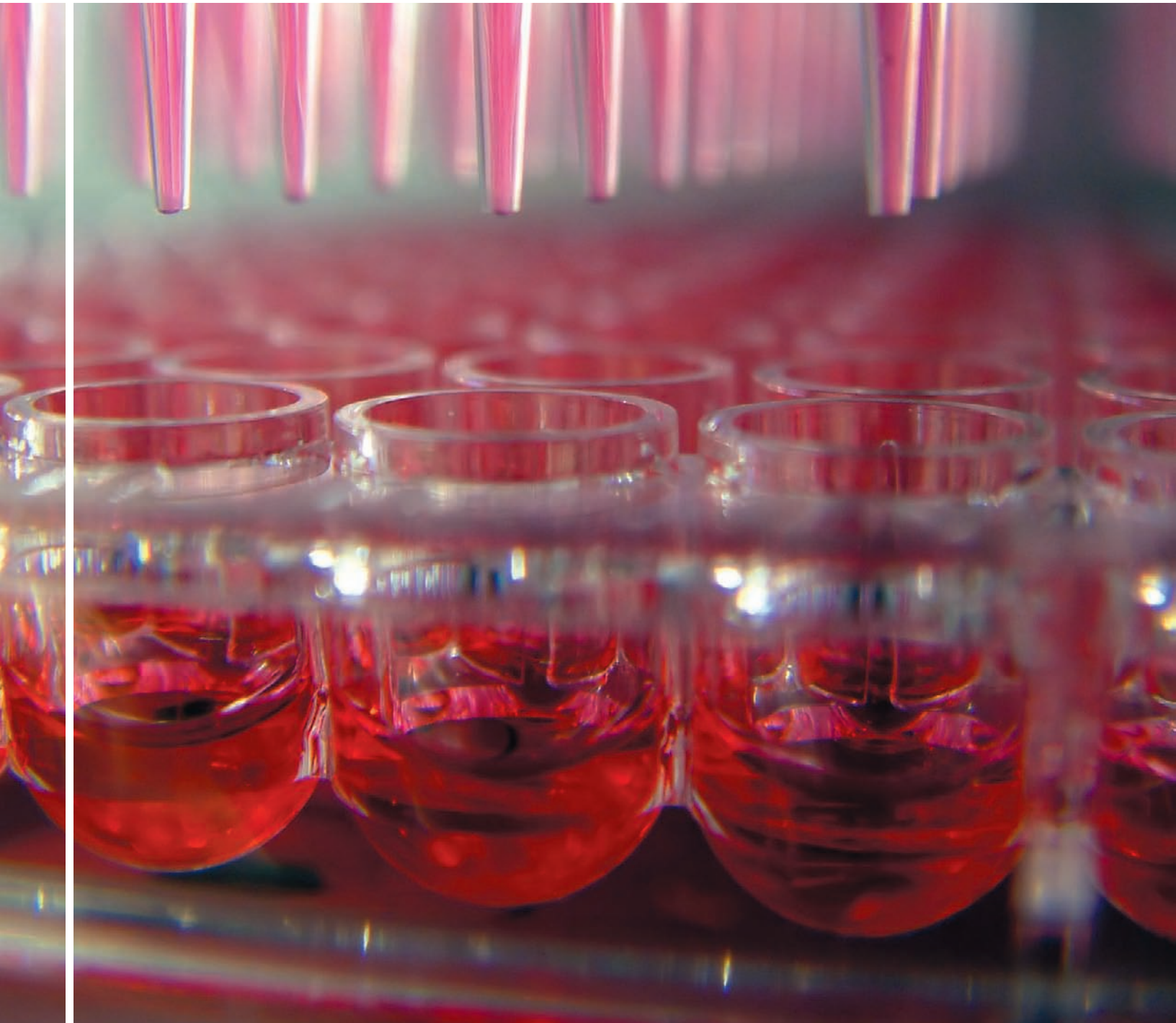


2009

최적의 투자처-캐나다
바이오 의약



캐나다 투자현황

- » **매사추세츠의 찰스 리버 레버러토리스(Charles River Laboratories International)**는 2009년 퀘벡주에 임상전 서비스 시설을 건설해 약 1,000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 » 프랑스 업체인 사노피 파스테르(**Sanofi Pasteur**)는 2008년 온타리오주의 신규 R&D 시설에 1억 달러를 투자했다.
- »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laxoSmithKline)**은 2007년 한 해에만 1억7,800만 달러 이상을 캐나다 R&D에 투자했다. 이 회사는 노바스코샤주, 온타리오주, 알버타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등 캐나다 전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 » 스위스 노바티스그룹의 산도즈(**Sandoz**)는 2007년 발표한 8천만 달러 투자계획의 일환으로 퀘벡주에서 제조공장을 신설했다.
- » 독일의 베링거 잉겔하임(**Boehringer Ingelheim**)은 퀘벡주에 신설된 여러 첨단 연구소에 2008년 3,6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세계 주요 투자기업

암젠 (Amgen)
 아스트라제네카 (AstraZeneca)
 바이엘 (Bayer)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 (Bristol-Myers Squibb)
 일라이릴리 (Eli Lilly)
 글락소스미스클라인 (GlaxoSmithKline)
 호프만라로쉬 (Hoffman-LaRoche)
 존슨앤드존슨 (Johnson & Johnson)
 쥬빌런트 올라노시스 (Jubilant Organosys)
 머크프로스트 (Merck Frosst)
 노바티스 (Novartis)
 노보팜 (Novopharm)
 화이저 (Pfizer)
 산도스 (Sandoz)
 사노피아벤티스 (Sanofi-Aventis)
 와이어스 (Wyeth)

캐나다 선도기업

엔지오테크 파마슈티컬스 (Angiotech Pharmaceuticals)
 아포텍스 (Apotex)
 바이오메디사이언스 (BioMS)
 바이오니체생명과학 (Bioniche Life Sciences)
 바이오배빌 (Biovail)
 캔진 (Cangene)
 이뮤노백신테크놀로지스 (ImmunoVaccine Technologies)
 메디큐어 (Medicure Inc.)
 테라테크놀로지스 (Theratechnologies)
 트랜지션 테라퓨틱스 (Transition Therapeutics Inc.)
 트릴리엄테라퓨틱스 (Trillium Therapeutics)

캐나다는 세계 바이오 의약 산업 중 특히 연구개발, 임상실험, 제약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입기준 세계 10대 제약회사가 모두 캐나다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이 중 몇 개 기업은 연구개발(R&D)과 제약 분야 전임 사업소를 캐나다에 두고 있다. 지난 2007년 바이오 의약 부문은 전 세계적으로 미화 6,635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다. 같은 해 캐나다 바이오 의약 부문은 176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수출에서 약 63억 달러를 올렸다.¹

수출의 80% 정도가 대미수출이었다. 2007년 캐나다에는 397개의 바이오 의약 업체와 404개의 바이오 기술 업체가 있으며 약 29,000명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캐나다는 세계 바이오 의약 회사들을 위한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류 학술기관과 세계적 수준의 혁신적인 과학, 연구 및 임상 네트워크, 기술인력, 혁신환경 및 각종 제휴 기회도 제공한다.

핵심 역량

연구개발(R&D): 의약 소재 발견단계부터 3단계 주요 실험단계에 이르기까지 캐나다 R&D 분야는 환자를 신속하게 회복시키고 의약품품질시험관리기준(GCP)을 엄격히 준수하며 품질이 우수하고 신뢰할만한 자료를 생산한다. 2007년 바이오 의약 관련 R&D에 13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캐나다는 17개 의학대학과 100개 이상의 대학 병원에 종사하는 약 30,000명의 연구인력을 자랑하고 있다. 캐나다는 G7 회원국 중 보건 연구 특히 분야의 선두에 서 있으며 세계에서 임상실험을 4번째로 많이 하는 국가이다.

제약: 주요 제약회사 다수가 캐나다에 제약 시설을 두고 있다. 이웃하고 있는 미국 시장과 접근이 용이한 캐나다는 북미지역 제약 분야의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며 가격 경쟁력이 높은 우수한 투자처이다. 캐나다는 또한 우수약품제조관리기준(GMP) 상 소형 미립자와 생물제제 제조 분야의 시험단계에서 완전한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세계적 수준의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캐나다에는 세계 최대 복제약품 제조사인 아포텍스(Apotex)가 위치하고 있다.

의약 서비스: 캐나다에는 세계적 수준의 제약 서비스 업체들이 다수 있으며 생명과학 산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R&D, 임상실험, 제약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의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는 2007년 178억 달러 매출 및 63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출을 기록하며 바이오 의학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¹Unless otherwise noted, all values are in Canadian dollars. 1 IMS Health Canada.

캐나다 비즈니스 서비스 클러스터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바이오 의학 부문에는 90개 이상의 기업체에 2,2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약 7억7,900만 달러의 연간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는 또한 세계 최초의 수익성 바이오 제약회사인 QLT사와 안지오테크(Angiotech)가 있다. 밴쿠버는 브리티시컬럼비아암센터(the B.C. Cancer Agency), 브리티시컬럼비아질병통제센터(the B.C. Centre for Disease Control),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등 세계적인 연구시설을 수용하고 있다.

마니토바주

위니펙에는 40개 이상의 기업, 30개 R&D 기관, 23개 서비스 기관에서 4,200명이 종사해 바이오 의학 R&D와 제조 분야의 수용규모가 대단히 큰 생명과학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 위니펙에는 2008년 캐나다 10대 생명과학 기업 중 다이어미디어(Diamedia), 케인바이오테크(Kane Biotech), 사문(Samune)이 있다. 캐나다에서 세 번째로 큰 의약품 수출 중심지인 이곳에는 캔진사(Cangene Corporation), 아포텍스퍼멘테이션(Apotex Fermentation), 바이오매일(Biovail) 비타헬스(Vita Health) 등이 제약회사가 들어서 있다.

캐나다 보건청이 위치한 마니토바주는 전염병 확인 및 관리 부문에서 탁월한 글로벌 의학 중심지이며 캐나다 유일의 4등급 질병역제 연구소가 있는 곳이다. 바이오 의학 클러스터가 집중하는 분야는 전염병, 심장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종양학, 신경과학, 기능성 식품, 진단학 등이다.

알버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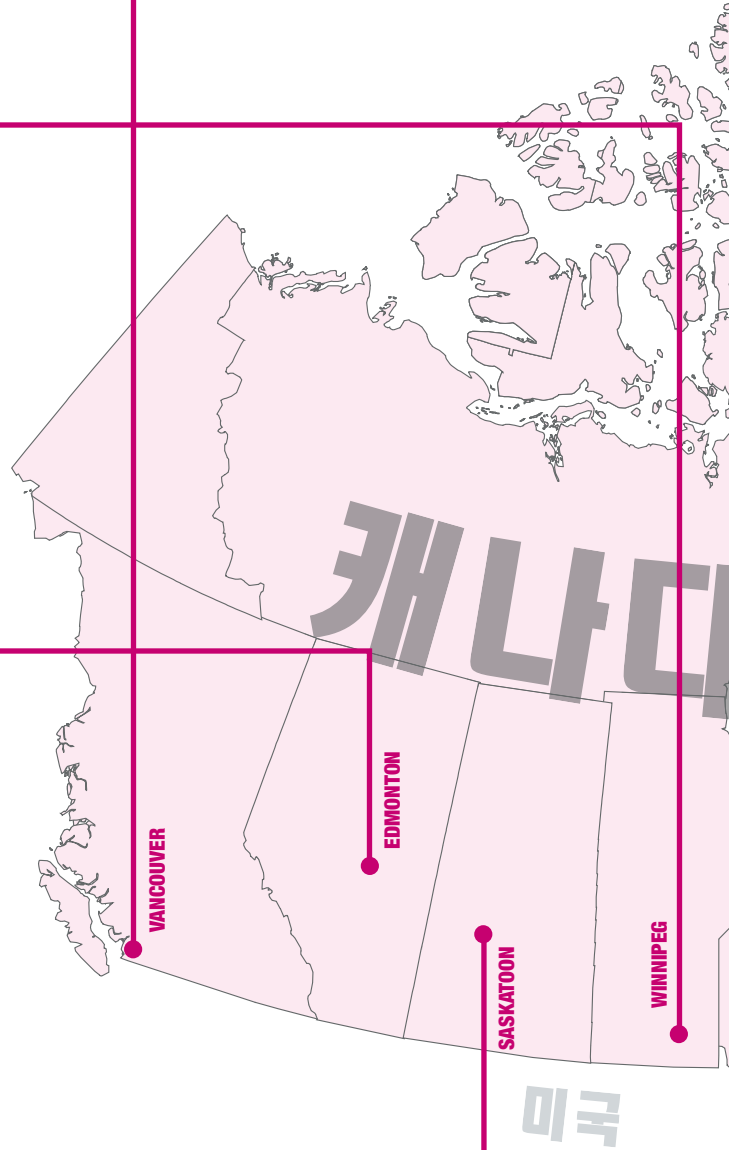
에드먼튼은 세계적인 연구원들과 풍부한 바이오 의학 연구 수용력을 자랑하는 정부 지원의 첨단 연구시설이 있다. 에드먼튼의 알버타대학(University of Alberta), 캘거리대학(the university of Calgary), 레스브리지대학(the university of Lethbridge)은 기초연구를 위한 훌륭한 연구 환경을 제공한다. 이로 인해 유형1 당뇨병에 대한 에드먼튼 프로토콜 치료, 진행된 암의 이미지화 및 치료, 신경학적 이미지화, 심장병 및 전염병의 치료를 위한 첨단 연구 등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민간 기업도 알버타주의 연구 환경을 더욱 향상시켰다. 가령 바이오메디컬사이언스(BioMS Medical Corporation)는 각종 경화증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온콜릭스바이오테크(Oncolytics Biotech Inc.)는 암 치료를 위한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계약 R&D 업체로는 NAEJA 제약(NAEJA Pharmaceuticals)과 켈루츠(Chemroutes Corporation)가 있다. QSV바이올로지스(QSV Biologics)는 우수 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계약생산 업체이다. 질리드사이언스(Gilead Sciences)도 에드먼튼에 제조 시설을 두고 있다.

사스캐추완주

사스캐추완주에는 훌륭한 연구 시설이 다수 위치하고 있으며 임상실험뿐 아니라 관상동맥 질환, 암, 당뇨, 바이러스 감염 등의 치료제 확보와 백신 개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사스캐추완주는 다수의 업계 선도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바이오니치라이프사이언스(Bioniche Life Sciences Inc.)와 POS파일럿플랜트(POS Pilot Plant) 등이 있다.

사스캐투의 국립연구위원회인 식물생명공학연구소(Plant Biotechnology Institute)는 캐나다인의 건강과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 식물을 바탕으로 한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5가지 세계 최초 동물 백신 연구에 성공한 비영리기관인 백신 및 전염병기구(Vaccine and Infectious Disease Organization)는 인플루엔자와 C형 간염으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고 신생아를 위한 효과적인 백신의 부족 문제와 개발도상국가 의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에서 인체 보건 분야로 연구를 확대했다.



북미 바이오 벤처 캐피탈

온타리오주

토론토는 대형 바이오 의약 클러스터이자, 북미 지역 최대 의학의 도시이다. 토론토 클러스터의 중심에는 디스커버리 디스트릭트(discovery district)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 곳에는 마르스센터 (MaRS Centre), 도넬리 세포 및 생체분자 연구 센터 (the Donnelly Centre for Cellular and Biomolecular Research), 연구 병원, 전문 기관, 혁신적인 생명과학 기업 등이 있다. 위의 기관들 덕분에 광역 토론토(GTA)는 게놈학, 단백질체학, 생물정보학 등의 선두 지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의학 공급업체 네트워크가 잘 정비된 의약 유통 중심지로 자리매김한 GTA는 의약품 제조 부문에서도 주요 전문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지역은 바이엘(Bayer), 일라이릴리(Eli Lilly),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 사노피파스테르(Sanofi Pasteur) 등 세계 굴지의 제약회사가 주목하고 있는 지역이다.

오타와는 바이오기술 사업의 높은 잠재 가능성에 투자해 성공한 캐나다 최초의 도시 가운데 하나이다. 현재 R&D, 임상 연구, 제약 부문의 중심지인 오타와에는 국립연구위원회가 자리하고 있으며 20개의 생명과학 관련 연구기관은 연간 약 3억5,000만 달러를 R&D에 투자하고 있다. 오타와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은 MDS노르디온(MDS Nordion), 베리에이션바이오테크놀로지(Variation Biotechnologies), 애보트포인트오브케어(Abbott Point-of-Care), 베스트메디컬캐나다(Best Medical Canada) 등이 있다.

퀘벡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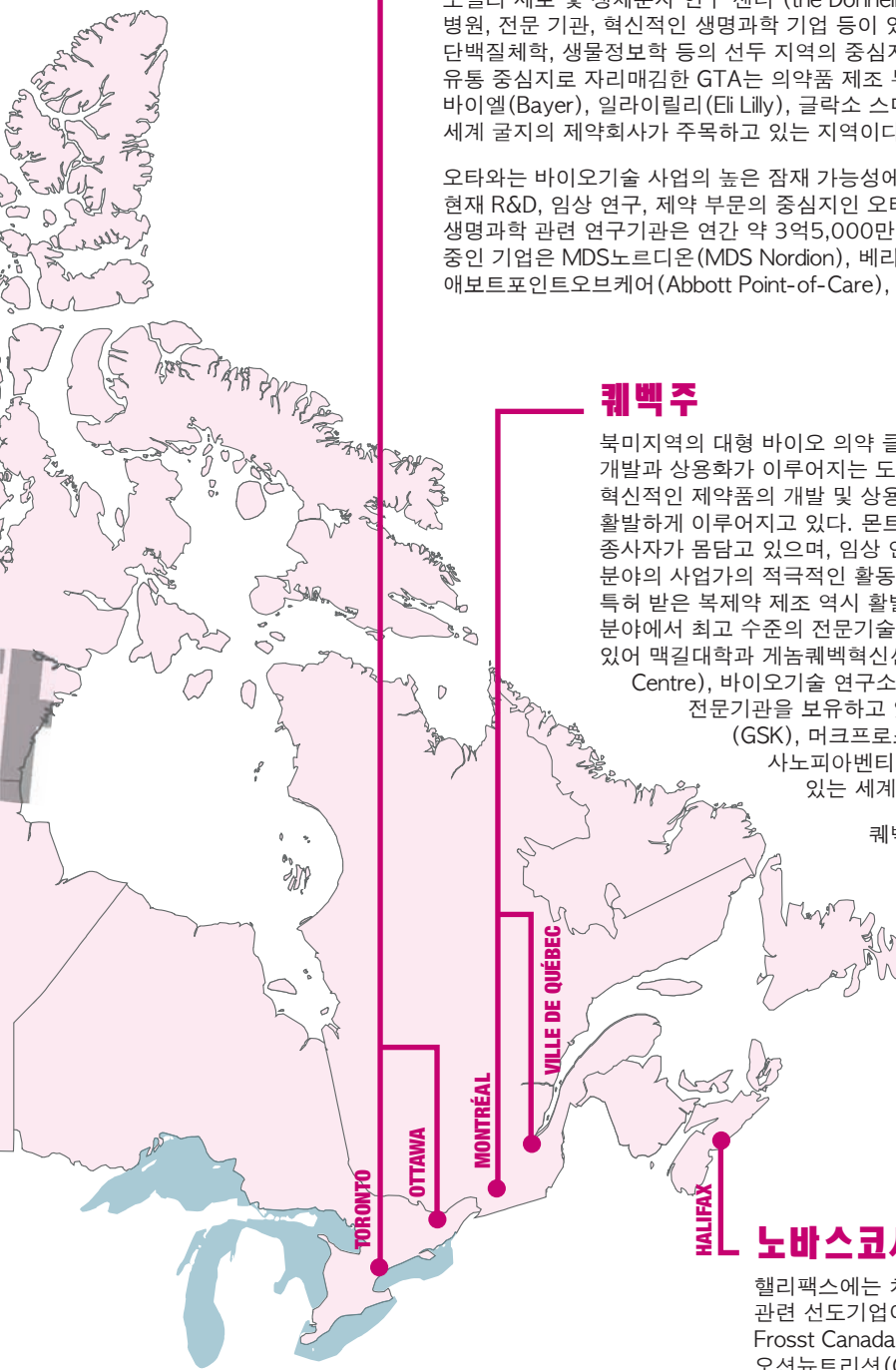
북미지역의 대형 바이오 의약 클러스터인 몬트리올은 혁신 의약품의 기초 연구에서부터 개발과 상용화가 이루어지는 도시이다. 기초 및 수탁 연구의 최고 거점인 몬트리올에서는 혁신적인 제약품의 개발 및 상용화와 바이오기술 회사들에 대한 벤처 캐피탈 펀딩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몬트리올 바이오 의약 클러스터에는 약 15,000명의 관련 종사자가 몸담고 있으며, 임상 연구 분야의 방대한 전문기술과 바이오정보학과 의약 기술 분야의 사업가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몬트리올 클러스터에서는 특히 받은 복제약 제조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백신 제조와 치료용 단백질 바이오제조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기술을 자랑하는 몬트리올은 R&D 분야에서도 명성을 누리고 있어 맥길대학과 게놈퀘벡혁신센터(the McGill University and Genome Quebec Innovation Centre), 바이오기술 연구소(the Bio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등 명성 있는 전문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 머크프로스트(Merk Frosst), 노바티스(Novartis), 파이자(Pfizer), 사노피아벤티스(Sanofi-Aventis), 와이어스(Wyeth) 등이 몬트리올에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이다.

퀘벡시티의 보건 분야는 특히 백신 제조, 계약연구, 진단학, 의료장비 및 의약기술 제조에 집중하고 있다.

제약회사들은 2006년부터 약 10억 달러를 해당 지역의 자사 생산설비에 투자했는데 이는 퀘벡시티에 고등인력, 기술인력, 전문인력의 풍부한 인재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테나젠타리스(Aeterna Zentaris), 아나팜(Anapharm),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등 관련산업의 선도기업들이 들어서 있으며, 심장병학, 게놈학, 전염병, 면역학, 비만, 종양학, 신경의학, 기능성 식품 등에 관한 첨단 연구에 전념하는 7개의 연구센터도 위치하고 있다.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에는 치료제 개발과 자연 건강식품의 제조 및 유통과 관련 선도기업이 여러 곳 있다. 머크프로스트캐나다(Merk Frosst Canada), 키토제닉스제약(Kytogenics Pharmaceuticals), 오션뉴트리션(Ocean Nutrition), 아센타헬스(Ascenta Health) 등이 그것이다. 아센타헬스는 오메가-3에 대해 캐나다 최고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핼리팩스가 자랑하는 뇌복원연구소(The Brain Repair Centre)에는 두뇌 복원 분야에서 혁신적인 치료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원과 내과의 1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방법론

본 벤치마킹 연구는 캐나다의 여러 바이오 의약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해외 경쟁 비즈니스 지역과 비교·평가한 것이다. 투자자의 관점을 최대한 반영한 본 연구는 대표 시범 투자 프로젝트(R&D와 의약품과 관련된 완전히 통합된 제약 사업뿐 아니라 의약 발견과 임상실험에 중점을 둔 바이오기술 R&D 시설—5쪽 프로젝트 프로파일 참조)를 이용해 기업 의사결정자들이 해외 투자지역을 선정할 때 일반적으로 검토하는 필수 기준들을 평가했다.

본 연구는 세계적인 투자지역 컨설팅 업체인 IBM-플랜트 로케이션 인터내셔널(IBM-Plant Location International, 이하 IBM-PLI)이 실시했다. IBM-PLI는 객관적인 연구를 위해 기업투자 프로젝트 후보지를 선정 시 실제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방식을 시뮬레이션 하는 등, 다양한 지역의 사업운영 비용 및 질적인 측면을 비교·평가했다. 각 산업 부문별 평가를 위해 250~300개의 재무 및 정성적 지표를 검토했다.

각 지역의 사업운영환경을 평가하고자 사업운영환경 평가항목표(5쪽 참조)에 나와있는 각 카테고리별 하위 항목에 필요한 데이터를 여러 출처를 통해 수집했다. 정성적 평가를 위한 데이터는 가중치 적용 점수계산법을 이용해 비교 가능한 점수(0~10점)로 변환했다. 또한 지역 카테고리 및 하위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지역선정과정에서 나타난 상대적 중요성을 반영했다. 이러한 가중치는 각 산업의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으며, IBM-PLI가 축적한 전략적 지역 선정을 위한 투자 컨설팅 노하우를 토대로 산정되었다.

각 대표 프로젝트 프로파일에 대해 지역적 영향이 큰 투자와 운영비용 및 매출을 고려하기 위해 철저한 재무분석을 실시했다. 영업비용 추정치의 경우 비용의 순 현재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예상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10년간의 추정치를 계산했다.

▶▶ 각국 투자지역의
사업운영 비용 및
질적인 측면을
비교·평가함.

투자지역 벤치마킹

투자지역 벤치마킹

대표 프로젝트 프로파일

바이오기술 R&D 및 임상실험

사업 개요

신약 개발과 임상실험에 중점을 둔 R&D 시설

프로젝트 주요 동력

- » 숙련된 인력의 가용성: 실험 전문요원, 연구원 등
- » 연구 및 기술 접근성: 대학교, 창업지원센터, R&D 펀딩 등

운영비용 분석

프로젝트 재무 모델링을 위한 요건

노동인력

(총인원 = 96)
생물학 과학자: 20
lab 스페셜리스트/기술자: 50
일반사무직원: 10
임상연구원: 15
사업관리자: 1

부지

2 acres

건물

37,500 sq ft

시설

전력 (월 소비량): 60,000 kwh
용수 (일일 소비량): 12,000 gal

자본투자

CAD \$3 million

프로젝트 분석

완전히 통합된 제약 운영

대표 프로젝트 프로파일, 사업 개요

상용 의약품의 연구, 개발 및 제조

프로젝트 주요 동력

- » 숙련된 노동인력 활용가능성: 과학자, 전문기술자, 생산기능공 등
- » 전세계 인재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장점
- » 연구기술 접근성 (대학, 창업 육회사, 연구개발 펀딩 등)

운영 비용 분석

프로젝트 재무 모델링을 위한 요건

노동인력

(총인원 = 400)
생산기능공: 250
수석 과학자: 50
실험 기술자: 45
엔지니어: 30
경영 및 행정인력: 25

매출액

CAD
\$120,000,000

기계 및 장비

CAD
\$200,000,000

토지

50 acres

건물

270,000 sq ft

시설

전력 (월 소비량): 400,000 kwh
가스 (월 소비량): 8,000 MCF
용수 (일일 소비량): 200,000 gal

사업운영환경 지역평가항목

전반적인 사업환경 » 10%*

- »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여부
- » 지역정부와 지역 개발 업체의 지원 수준
- » 민간 규제, 정보 보안, 지적재산권 보호의 준수 » 정치적 안정성
- » 경제 및 금융 안정성

기술인력의 현지 조달력 » 30%*

- » 제약 및 바이오기술 관련 전문인력 유무 » 학생 인구
- » 인재풀의 전체 규모 » 노동시장의 경색 (실업률)

해당 산업/클러스터 유무 » 30%*

- » R&D의 중요도 » 금융/규제기관의 근접성 » 산업기반 유무
- » 시장 근접성 (고객/공급사에 접근성)

노동 및 규제 유연성 » 5%*

- » 채용 및 해고 유연성 » 노동 허가제 » 근로시간 규정
- » 노사관계/노조의 성격

기반시설 및 통신 » 10%*

- » 항공이용 가능 여부 » IT 및 통신의 품질과 안정성 » 대중교통
- » 고속도로 시스템 및 혼잡성 » 안정된 전력공급

생활환경 » 15%*

- » 젊은 해외 신입사원 유치 가능성
- » 국외거주자(외국인) 유치 가능성

사업운영환경 지역평가항목

전반적인 사업환경 » 15%*

- » 지역정부와 지역 개발 업체의 지원 수준
- »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여부 » 사업 인허가 절차
- » 민간 규제, 정보 보안, 지적재산권 보호의 준수
- » 정치적 안정성 » 경제 및 금융 안정성

기술인력의 현지 조달력 » 30%*

- » 제조부문 및 기타 제약 관련 전문인력 유무 » 인재풀의 전체 규모
- » 노동시장의 경색 (실업률) » 학생 인구

해당 산업/클러스터 유무 » 10%*

- » 산업기반 유무 » 시장 근접성 » R&D의 중요도

노동 및 규제 유연성 » 15%*

- » 근로시간 규정 » 채용 및 해고 유연성
- » 노사관계/노조의 성격

기반시설 및 통신 » 20%*

- » 고속도로 시스템 및 혼잡성 » 항공이용 가능 여부
- » 안정된 전력공급 » IT 및 통신의 품질과 안정성 » 대중교통

부동산 » 5%*

- » 대규모 산업부지 이용가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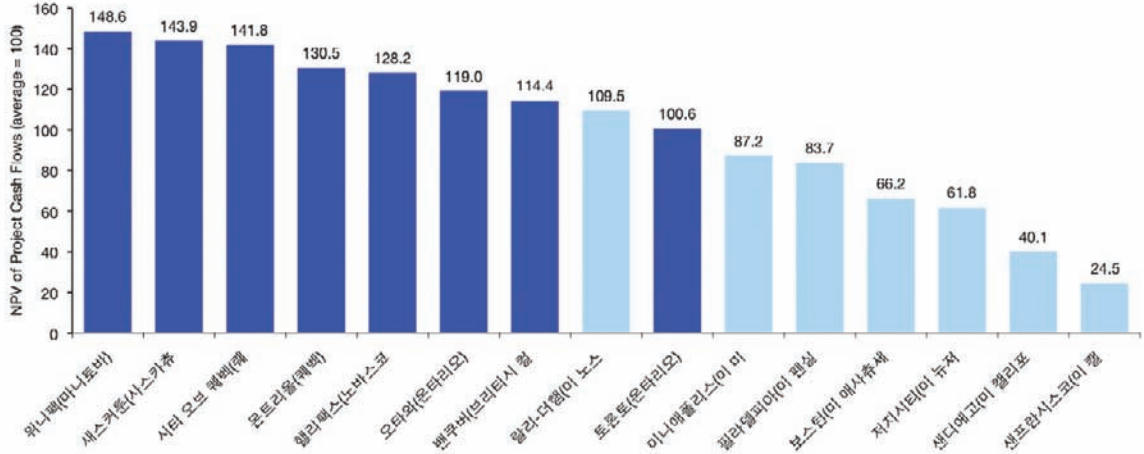
생활환경 » 5%*

- » 젊은 해외 신입사원 유치 가능성
- » 국외거주자(외국인) 유치 가능성
- » 생활비

세계 바이오 의약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캐나다는 첨단 연구 프로그램과 탄탄한 재정 및 벤처자본 프로그램 덕분에 이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캐나다는 발전 기회를 포착한 완전히 통합된 의약회사들에게 비용 경쟁적인 투자지역과 우수한 사업환경이라는 훌륭한 이점을 보장하고 있다.

비용 평가*

■ Canadian
■ Non-Canadian
1 CAD = 0.862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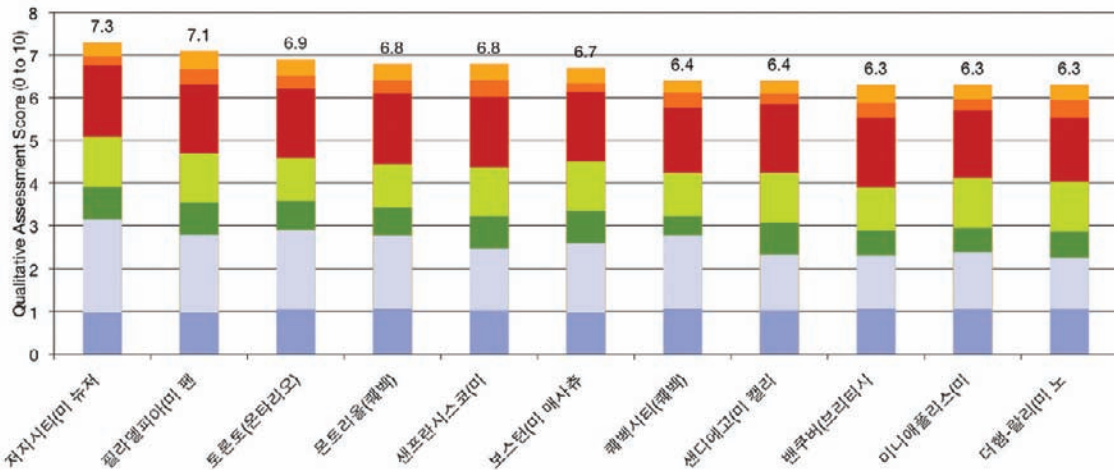
투자수익률(ROI) 증대

캐나다는 IBM-PLI 벤처마킹 연구에서 평가된 다른 북미 지역과 G7 국가와 비교해서 가격 경쟁력이 가장 뛰어난 지역이다. 위니펙, 사스캐튼, 퀘벡시티 등은 다른 경쟁 도시보다 비용 절감 이점이 큰 투자지역이다. 몬트리올, 토론토와 같은 대형 바이오 의약 클러스터를 포함해

비교·평가된 모든 캐나다 도시는 현금 흐름과 운영 비용 등의 재정 분석을 기준으로 한 평가에서 상위 10위 안에 든다. 법인세 세율이 낮고 R&D 인센티브가 많아 캐나다 지역은 투자기업이 비용 구조를 최적화하는데 일조한다.

사업운영환경에 대한 정성적 평가*

■ 생활환경
■ 부동산
■ 기반 시설 및 통신
■ 노동 및 규제 유연성
■ 해당 산업/클러스터 유무
■ 기술인력 현지 조달력
■ 전반적인 사업환경



풍부한 전문기술을 갖춘 안정된 클러스터

캐나다는 비용 경쟁력이 높은 투자 지역일 뿐 아니라, 세계 최고의 사업운영환경을 바이오 제약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나라이다. 최고 수준의 여러 바이오 제약회사들의 본거지인 토론토와 몬트리올은 북미 지역의 유력한 투자 지역이다. 캐나다의 퀘벡시티와 밴쿠버 역시 수준 높은 환경을 제공한다. 의약산업 분야에서 고급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캐나다, 몬트리올, 퀘벡시티 등은 이러한 측면에서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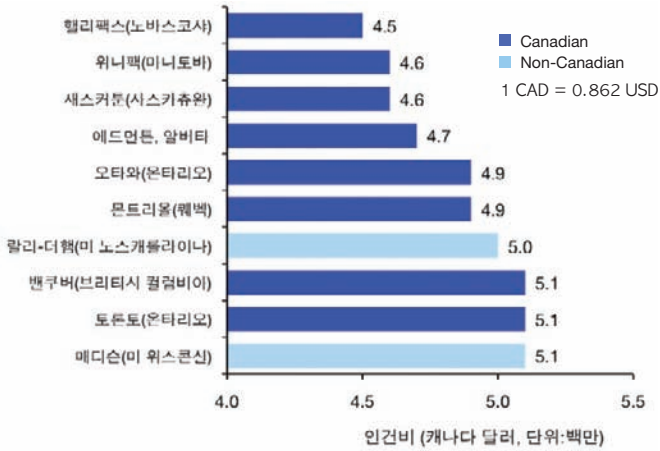
탁월한 점수를 얻고 있다. 캐나다 지역 전반이 R&D 분야와 도로 접근성, 적은 교통체증, 지역 전력의 안정적 공급 등 바이오 의약 부문에서 주요 투자 동력이 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각종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다. EU-캐나다의 신 항공 협약은 캐나다의 대륙 횡단 무역 성장에 이바지함으로써 승객 및 제품들의 수급의 효율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그래프는 IBM-PLI 평가 점수를 나타냄.

캐나다의 가치제안



연간 추정 인건비 (상위 10개 도시)**



인건비 절감 효과

신약 개발과 임상실험에 전념하는 R&D 시설에 필요한 연간 인건비를 추산해 보면 캐나다는 막대한 비용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평가대상에 포함된 캐나다 도시 모두 인건비 절감 효과가 높은 상위 10개 도시 안에 들며 필라델피아, 보스턴, 저지시티 등 미국의 경쟁 도시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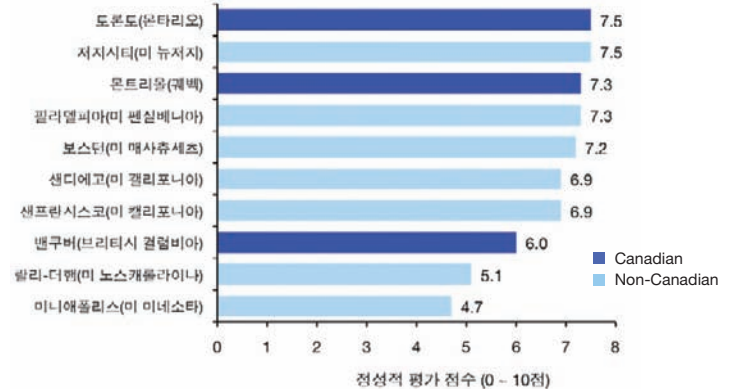
미국과 비교했을 때 캐나다의 인건비 절감 효과는 크며, 이는 근로인력에 제공하는 복지후생비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낮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의료보험제도는 대부분의 의료보험 비용을 고용인이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비용으로 충당함으로써 고용인의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발전하는 바이오 의약 클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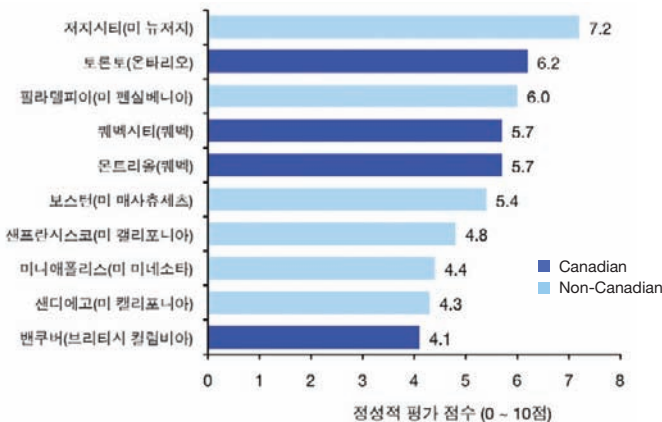
바이오 의약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으면 구매자, 공급자 및 기타 기관이 근접해 있다는 이점이 있고 이로 인해 효율성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생산성이 향상되고 혁신이 가속화된다.

캐나다는 바이오기술 기업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가이며 바이오 의약 산업 관련 클러스터가 최대 규모로 형성된 국가 중 하나이다. 약학 및 의약 분야 기업의 공식적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토론토와 몬트리올은 미국의 저지시티나 뉴저지에 버금가는 북미에서 가장 탁월한 의약 산업단지이다.

표: 의약산업기반 유무 (상위 10개 도시)*



기술인력 현지 조달능력 (상위 10개 도시)*



풍부한 인적자원

성공적인 R&D 활동을 위해서는 숙련된 임상외의 연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의 인접성과 학생 인구는 보건 조사 및 연구 시험 인구조로 활용될 뿐 아니라 교육받은 인적자원의 조달에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고등교육 부문에서 세계 최고 점수를 받은 캐나다는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의욕적인 고급인력이 확보된 국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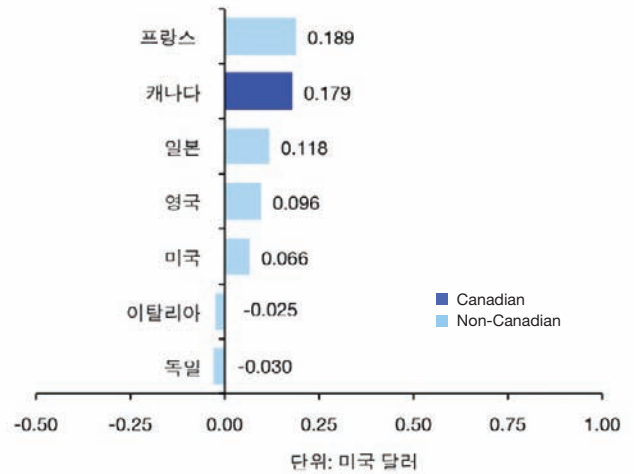
토론토, 몬트리올, 퀘벡시티, 밴쿠버 등은 제약회사와 바이오 의약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숙련된 노동력이 풍부한 지역이다. 또한 학생 인구가 많아 인재를 꾸준히 공급한다.

풍부한 R&D 인센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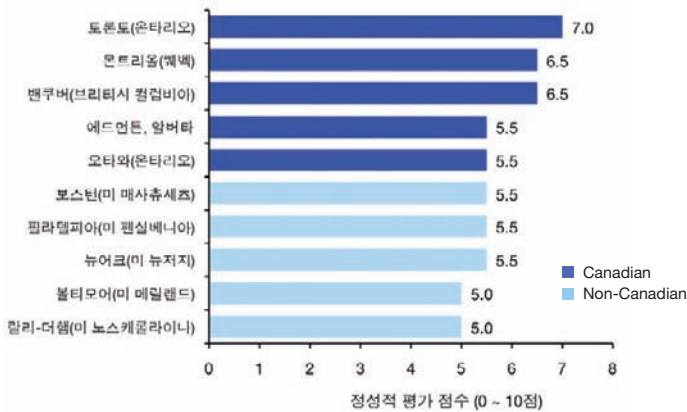
캐나다는 바이오 의약 기업이 성장하는데 R&D와 혁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해마다 수십억 달러가 R&D 분야에 투자되어 투자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와 기반산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출비용에 대해 연방 및 주 정부가 세금 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의 과학연구 및 실험 발전(SR&ED) 프로그램은 근로임금, 간접비용, 자본재 등 R&D와 관련한 다양한 비용의 20%를 충당해주는 비고정적 인센티브 제도이다. SR&ED 프로그램으로 기업들은 직접 투자나 하도급을 통해 R&D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미화 1달러 당 R&D 기업의 세금 공제율 (G7 국가)**



학생 인구 (상위 10개 도시)**



고급인력 확보

캐나다는 인적자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전 세계 인재를 기꺼이 채용한다. 이는 캐나다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 졸업률을 자랑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을 잘 받은 재능 있는 인력과 사업 성공에 일조할 의욕 있는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 보여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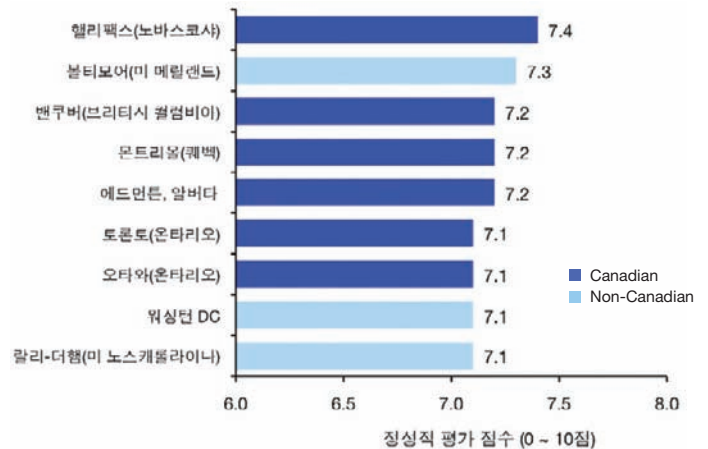
IBM-PLI의 비교평가 연구 결과 생명과학 전공 졸업생 수 항목에서 캐나다 5개 도시가 최상위 그룹을 차지했다.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 오타와, 에드먼튼 등 5개 도시는 생물학, 생의학, 일반 생명과학 분야의 교수진을 확보한 규모 있는 대학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에 인재를 대규모로, 또한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67 회원국 중 사업 최적지

캐나다는 건실하고 역동적인 경제, 저렴한 법인세율, 풍부한 R&D 인센티브가 보장된 국가이다. 더불어 지역 정부와 지역 개발 업체의 지원, 민간 규제, 정보 보안,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 마련돼 있어 기업이 투자하고 번영하는데 유리한 사업환경을 갖추고 있다.

G7 회원국 중 지난 10년 동안 GDP성장률이 가장 높고 가장 건전한 은행시스템을 보유한 캐나다는 안전하고 건실한 사업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투자기업에 막대한 성장 잠재력과 안정적 투자를 유지하게 한다.

전반적인 사업환경 (상위 10개 도시)*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그래프는 IBM-PLI 평가 점수를 나타냄. **OECD 과학, 기술, 산업 스코어보드 (2007년). ***출처: 국립교육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고등교육 데이터 및 다양한 자료 통합. 1 세계경제포럼 2008년-2009년 세계 경쟁력 보고서 (2008년 10월).

최적의 투자처-캐나다

캐나다는 투자기업에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희망 투자 분야에 대한 전략적 시장 정보
- 정부 정책결정 핵심 인사와 직접 연결 주선
- 관련 분야 전문가, 관련 기업 및 협회 담당자 소개
- 캐나다 창업 정보 및 자문
- 적합한 투자지역 발굴 지원
- 향후 투자 결정을 위한 비즈니스 사례분석 지원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이것이 바로 성공을 꿈꾸는 귀하가 전략적으로 캐나다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캐나다 투자 상담을 원하시면 투자청 웹사이트

(www.investincanada.com/globalnetwork)

를 이용해 주십시오.

캐나다 투자청:
외교국제통상부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
서섹스 드라이브111(K1N 1J1)

E-Mail: investincanada@international.gc.ca
Website: www.investincanada.com

카탈로그 번호: FR5-38/4-2009Ko-PDF
ISBN: 978-0-662-03271-7

본 문서는 캐나다 투자청이 IBM/PLI와 공동으로 제작했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본 문서는 세부사항이나 철저한 참조정보 제공을 의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문서를 읽는 사람은 내용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문서의 정확성이나 시의성, 목적의 연관성 등을 스스로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문서에서 언급된 기업이나 투자는 오로지 설명을 위한 용도이며, 해당 기업이나 투자내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인용된 모든 사실과 숫자에 대한 상세한 출처 정보는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본 문서 내용과 관련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재생지를 사용한 본 문서는 불어를 비롯한 기타 외국어로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의 저작권은 여왕에게 있으며 2009년 캐나다 외교국제통상부 장관이 권한을 대행합니다.